

# 박빙 중 박빙... '정당 바람' 활용 전략 구사

## 4.13 총선 격전지 최종 점검·전주 갑·을·병

4·13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야권 주도권을 틀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당 텃밭인 전북에서 한 치 물러섬 없이 배수진을 치며 선거에 임하고 있지만 도내 선거구 대다수는 혼전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박빙 승부를 펼치는 전주 갑·을·병 선거구는 각 당의 세 명 후보가 연합 선거운동을 펼치는 이른바 '당 바람'을 선거에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전주 갑·을·병 선거구 등 3개 지역을 심층 분석해본다.

### 전주 갑, 당보다 인물에 초점 막판까지 표심 향배 알수 없어

### 전주 을 정운천·최형재에 맞선 장세환, 지도부 지원에 힘 얻어

### 전주 병, 김성주·정동영 '용호상박' 대결 관심

▲전주 갑... 조직력? ↔ 지역정착?  
전북정치 1번지로 불리는 '전주갑' 선거구는 야당의 텃밭인 전북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18대 총선에서 완산갑 유권자들은 연속으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이번으로 정치 1번지에 걸맞게 당 보다 인물론에 힘을 받는 지역이다. 특히 전주갑은 전주 3개 선거구 중 가장 보수적인 투표성향이 높고, 선거막판까지 표심의 향배를 알 수 없는 지역으로 정평이 나있다.

전주갑의 관세가 전체 10개 선거구 관세에 영향을 미칠 만큼 전북의 맹주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각 당의 주 공세 지역이다. 새누리당 전희재 후보는 문화관광과 연계한 전통문화수도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전주한옥마을의 소득 관광화와 후백제신성복원 및 관광벨트화, 국립무형문화유산전당의 활성화, 구도심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선에 도전하는 더민주 김윤태 후보는 전주의 위상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전라강령 복원과 전주의 맛을 관광상품화해 음식관광 창조타운을 조성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선도사업 전주유치 등을 공약하고 있다.



김윤태 후보 김광수 후보

사회지도층의 모범적 사회공헌 활동 법제화를 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는 한옥마을 연계 문화 예술촌 조성과 역사유적 탐방로 조성 등을 통한 체험형 관광 네트워크 구축, 구도심 활성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프로젝트 시행 시·도의원 100% 주민공천제를 통한 상향식 공천을 약속했다. 전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한 무소속 유종근 후보는 전주권역간 건설계획을 되살리고, 호남고속철도 서전지역사를 신설하겠다는 포부다. 또한 한옥마을과 연계해 전주시 일원에 전주역 역사인 백제, 조선시대 테마파크를 유치해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 을... 그래? ↔ 그래?  
전주을은 새누리당 정운천·더불어민주당 최형재·국민의당 장세환 후보가 모두 30%대에서 오차범위 내에 나란히 늘어서는 사상 초유의 초박빙 선거가 전개되고 있다. 도내 10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당선권을 다투고 있는 곳은 전주을 선거구가 유일하다.

### 도내 총선 격전지의 경쟁 후보자들



정운천 후보 최형재 후보 장세환 후보

이에 따라 새누리당 정 후보 선전이 유권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관내에서 이례적으로 현 여권 후보로서 선전하고 있는데 '예산확대'를 공언하고 지난 2014년 7·30 전남 순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던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의 여파도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북은 '호남'이라는 틀로 묶여 불려지고 있지만 '호남' 내에서도 변방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정세가 강하다. 발전보다는 정체와 낙후가 계속되고 있어 지역 발전에 대한 유권자들의 욕구가 매우 강한 상황이다.

여권 후보의 선전은 이러한 지역민들의 지역 발전 욕구를 반영한 결과라는 평이다. 최형재 후보는 경선에서 현역 이상직 의원을 꺾었다는 의미로 결과로 확산된 인지도와 함께 시·도의원 지지선언·합류 등 호재가 겹치면서 전통적인 2번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하며 가파른 지지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는 안철수 대표와 김한길 전 위원장의 전주 집중유세를 계기로 일신우일신 중이다.



김성주 후보 정동영 후보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후보 지지도는 박빙이지만,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당이 더민주를 압도하고 있다는 막판 '신당비판'이 또 한 번 거세게 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주 병... 그래도? ↔ 그래도? 전주병은 전북에서 국민의당 '녹색 비람'을 좌우할 전략적 포석지다. 전북을 대표하는 주요 간판급 정치인과 현역 국회의원이 맞붙는 것도 관심이지만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이번 선거 관세에 중심축이 될 것이라 관측이 증폭이다. 정 후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시선은 애증이 교차된다. 그는 15·16대 총선에서 각각 89.9% 88.2%로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선후보까지 올랐다. 호남에서 소외된 전북에선 정 후보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다는 증거다. 그러나 2007년 대선에서 500만표 이상 차로 이명박 후보에게 참패했고 이듬해 18대 총선에선 서울 동작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09년 4월 재보선에서 당의 민투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그의 캐치프레이즈도 '어머니, 돌아왔습니다'였다.

그러나 이후 거듭된 수도권 출마와 탈당으로 지역 주민들의 실망도 차츰 커졌다. 더민주당 김성주 후보는 20대 총선에서 덕진빌 싸움뿐만 아니라 '전북대첩'이라 불리는 전북 전장 한가운데에서 정 후보와 펼치는 용호상박에 당의 명운을 걸어지는 한 관승부를 당당히 맞서고 있다. 현역 의원인 김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겸손하고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로 지역민의 신뢰가 두텁다. III공사이전 유치에 실패해 구겨진 전북의 자존심을 5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유치 이전으로 회복했다는 평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 등을 지내며 '중앙 무대'에서 정책적으로 활약한 최근 이력도 강점으로 뽑힌다. 전주병 유권자는 40대가 22%로 가장 많고 20~30대가 35%가량을 차지한다. 나머지 50대 이상이 42.8%를 차지해, 이들의 선택과 젊은층의 투표율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40% 안팎을 앞치락뒤치락 오르내리고 있는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먼저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율을 얻을지가 관건이다. /특별취재반

## 고소·고발로 얼룩진 '익산갑' 정책은 온데간데 없어

제20대 총선을 앞둔 익산 갑 지역의 선거권이 정책은 없고 각종 비난과 고소·고발 등으로 얼룩지며 시민들의 정치혐오를 불러오고 있다. 11일 국민의당 이한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흑색 선전의 책임은 이한수 후보에게 있다"고 비난하며 이한수 후보 선대위를 검찰에 고발했음을 피력했다. 이들은 이날 이한수 후보 측이 이한수 측 압수수색과 입건이라는 문자를 대량 살포해 선거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TV토론회에서 불거진 불륜설까지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이 같은 행위에 더불어민주당 이한수 후보 선대위는 곧장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음모와 음해의 정치를 뿌리 뽑겠다"면서 "이한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맞대응했다. 이한수 후보 선대위는 이한수 후보가 TV 토론회 과정에서 별도의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후보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해 시민의 정치혐오를 불러 일으켰다는 논리를 폈다. /특별취재반

### 김성주 후보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고발당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전주시 병선거구 김성주 후보가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고발됐다. 정동영 후보측에 따르면 김성주 후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탄소신용육성법을 만들었다고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이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1일 전주방송(JTV)이 주최한 전주병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 정동영 후보가 김성주 후보에게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탄소신용육성법을 만들었다고 표현한 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성주 후보는 당시 발송하지 않은 선거공보를 내보이면서 "만들었다는 표현이 없다"며 "이유 없이 상대후보를 공격·비난하지 말고 참모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정책 경쟁하라고 따끔하게 말하라"고 역공했다. 이후 4월 4일 전주 CB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김 후보의 예비후보물을 내보이면서 재확인을 요구했고, 김성주 후보는 비로소 "잘못된 표현"이라고 시인했다. /특별취재반

## 도민 10명 중 8명 '20대 총선 유권자'

151만9229명으로 전체인구 186만9297명의 81.27%... 1대 총선 대비 2배 ↑  
전북도민 10명중 8명은 유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헌국회 이래 열린 제1대 총선에서 10명중 4명정도가 유권자인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그만큼 도민들의 고령화가 이뤄졌다는 평이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정선거인수에 따르면 도내 유권자는 151만9,229명이다. 지난 2월 28일 선거구 확정당시 도내 인구는 186만9,297명(2015년 10월 조사 기준)으로 도내 인구수 대비 선거인수는 81.27%이다. 도민 10명중 8명 이상이 유권자가 된 것이다. 이는 1948년 제1대 제헌국회 총선(89.8%)과 비교할 때 도내 인구수 대비 유권자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도내 유권자 비중이 급증세로 돌아선 시기는 제10대 총선(1978년)이후이다. 50.5%를 기록한 제10대 유권자 수는 이후 제13대 총선(1988년) 60.1%, 제16대 총선(2000년) 71.0%, 제19대 총선(2012년) 78.8% 등으로 약 10년간 10% 가량의 유권자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7%를 넘겼다는 의미로, 전북은 제16대 총선거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이어 5년 만에 그 2배인 고령사회(65세 인구 비중 14% 이상)에 진입한 뒤 제20대 총선인 현재에 이르러서는 초고령사회(65세 인구 비중 20% 이상)로 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인구 구조가 고령사회를 넘어섬에 따라 전북지역 총선 후보자들은 사실상 도민 모두를 상대로 선거 활동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최고령 유권자로 남성은 1910년생(105, 전주시 완산구 거주)이고 여성은 1902년생(113, 장수군 거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반

## '김관영 '운동권 정당' 발언, 민주화 정신에 대한 모독'

### "민주진영 야당 후보자격 없어" 더민주 김윤태 후보, 사퇴 촉구

20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전북 군산선거구가 '운동권 정당' 발언 놓고 험투를 벌이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후보는 군산 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일 JTV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의 '패권주의에 쫓은 운동권 정당' 발언은 5·18 민주화 정신과 호남 민주화운동에 대한 막말과 모욕"이라며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자신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투옥한 경험이 있다 또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무소속 함영경 후보, 노동운동 출신의 정의당 조준호 후보와 함께 민주화운동 전체에 대한 경멸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민주화운동으로 사형 선도가 받은 김대중 대통령과 헌신적인 노동인권 변호사로 투옥됐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김관영 후보는 민주진영의 야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와 관련 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 후보는 "정당 정치에도 이제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특별취재반



범민주진보의 힘 하나로 20대 총선을 이틀 앞둔 11일 전북 군산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후보와 지지자들이 군산시청에서 "새누리당 2중대 국민의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역의원인 김관영 의원이 더민주를 떠나 국민의당으로 입당하면서 접전이 계속된 총선구도가 선거 막판에 선두 후보 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특별취재반

### 더민주 김원기 고문, 당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상임고문은 전북 등 호남 유권자들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고문은 11일 호소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누가 뭐래도 호남인이 지키고 가꾸어온 60년 전통 야당이다. 당의 원로이자 노장격의 한 사람으로서 호남유권자들에게 표를 몰아 줄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정권교체를 두려워하는 세력들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아권지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동하고 있다"면서 "국민의당은 여당에게 200석을 주더라도 제3당, 제4당이 각축하는 다당체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치의 현실을 모르는 아전안수의 주장이다"고 비판했다. 김 고문은 또 "노무현 정권 호남 출대 인사가 사실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정계는 퇴야야 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아니라면 허위사실을 퍼트린 사람이 정계는 퇴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이 당도 김종인의 당도 아니다. 호남인들이 피와 눈물로 지켜온 60년 전통야당이고 수권 가능 정당이다. 여당 독재국회와 여당의 장기집권을 막는 결단을 해주시기 간곡히 호소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 '김제 읍면동 협의회장 16명 김춘진 후보 지지 사실무근'

이대형 더불어민주당 김제지역위원회 읍면동 협의회장은 "도내 한 언론에서 밝힌 더민주 김제 읍면동 협의회장 16명 김춘진 지지자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장은 "지난 5월 3명 정도의 협의회장이 김 후보 캠프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16명의 협의회장이 집단적으로 방문해 지지선언을 한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반